

나르시시즘을 통한 코르셋 착용 분석 -18, 19C를 중심으로-

임성민[†] · 박민여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The Analysis of Wearing the Corset Using Narcissism -Focusing on 18C and 19C-

Sungmin Lim[†] · Meeanee Park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hee University

(2005. 7. 12. 접수)

Abstract

The human have constantly pursued the beauty through the history. Especially, the pursuit for the beauty of the human's body means that the subject is at one with the object pursued by the subject, which so called as the most active behavior of searching for the beauty. However it sometime shows that human have tried excessively to search for the beauty of the human's ideal body in the history, and to the degree of hurting the body. For example, the corset was eagerly worn by women with the hope of a satisfied silhouette because the slender waist and the busty bosom were demanded as the woman's ideal body at 18C and 19C(the age of Victori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set fashion in 18C, 19C, one of the most aggressive fashions out of the unreasonable fads, using narcissism that Freud mentioned as inside energy called libido. And the reason why to use the theory of narcissism in this study was that fashion as social outcome is thought to be influenced by the environment but the wearing behavior is considered totally private, it is particularly when focused on the excessive energy, and the scope was limited to the investigation into the source of the energy binding the own body to hurting. The analysis about this craze of a corset with the view of the theory of narcissism as follows. First, women could mold the ideal concretely in surroundings that ideal woman was constituted just to focus on the appearance, moreover, the mother reinforced the narcissism of their offsprings. Also, the society demanded women to be chaste, and did not allowed for women to reveal libido to the external. As a result of this, libido should be ended up concentrating on ego. With this process, it to be difficult for 'ideal ego' impossible for attainment to transfer to compromising product, ego ideal. That is, women did not think entirely to be out of the question to reach the ideal ego, which meant the energy to tight waists was given women.

Key words: Corset, Freud, Narcissism, Libido; 코르셋, 프로이트, 나르시시즘, 리비도.

[†]Corresponding author

E-mail: limsungmin@yahoo.co.kr

I. 서 론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 특히 신체의 아름다움은 주체와 객체가 일치하는 것으로 가장 적극적인 미적 추구라 할 수 있다.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보여지는 오브제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고려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현재에도 미를 추구하는 행동이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당시의 사회적 신체미의 기준에 도달하고자 몸을 해하면서까지 추구한 예를 볼 수 있다. 작은 발이 미인의 필수조건이었던 과거 중국에서는 여성들이 발을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발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신발에 발을 구겨 넣었다(그림. 1). 서양에서는 한때 과도한 머리장식이 유행하였는데 멋진 머리장식 때문에 목뼈가 부러지기도 하였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긴 목이 미인의 조건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쇠로 만든 고리를 어릴 때부터 목에 끼워 억지로 목의 길이를 늘리고자 하였다. 억지로 늘린 목길이를 인하여 생활의 불편은 물론 쇠고리가 없으면 머리를 지탱할 수 없게 되어 쇠고리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를 목에 걸고 살아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신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특히 18C, 19C 여성 신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가는 허리와 풍만한 가슴이 필수 요소였다. 이에 허리를 조이는 속옷인 코르셋은 만족스러운 신체의 실루엣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착용되어졌으며 그 조이는 정도가 심하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이로 인한 각종 질병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성들은 가는 허리와 풍만한 가슴을 위하여 코르셋의 끈을 풀려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목숨을 잃은 젊은 여성들의 현재 기사까지 미의 비이성적 추구는 장소를 불문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 왔다. 유행이 이성을 앞섰던 이러한 행동들은 매저키즘(masochism)이나 페티시즘(fetishism), 혹은 사회동조이론(conforming behavior)등의 틀로서 설명되기도 하는데 특히 다이어트의 경우 뚱뚱한 모습은 자신의 신체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행동은 특정 영향이 아닌 여러 가지의 영향아래 설명되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영향이 아닌,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패션을 따르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였다. 즉, 유행을 따르게 되는 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연구에서는 특히 몸을 해하면서까지 유행을 따르고자 하는 내면의 에너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Freud가 내면의 에너지가 자아로 집중된 현상으로 언급한 나르시시즘의 틀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유행이 이성을 앞섰던 이러한 패션들 중 그 정도가 가장 적극적이었던 코르셋의 열성적인 착용을 프로이드의 나르시시즘적인 입장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전족(纏足)을 신어서 일그러진 중국 여성의 발.
자료출처: 高洪興. (2002). 중국의 纏足이야기.

II. 연구목적 및 방법

이성을 앞섰던 패션들 중 특히 코르셋 패션을 통해서 비이성적인 정도로 열정적으로 패션을 따르게 하는 에너지의 근원에 대한 탐구를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이러한 질적 연구는 형태는 다르지만 근원은 같은 다른 패션현상들에 대한 해석에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패션은 사회적 결과물인 만큼 초기에 패션을 따르게 되는 것에는 외부적인 영향이 크다고 사료되나 옷을 입는다는 행위는 철저히 개인적인 행위인 만큼 몸을 해하면서까지 착용하려 하는 데에는 내면의 에너지가 작용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내면의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Freud가 내면의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는 연구에서 언급한 나르시시즘의 틀을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유행을 따르던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아닌 행동이 정도를 넘어서게 되는 에너지에 초점을 두어 Freud가 언급한 리비도를 이용해서 풀어보려 한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시행하게 되는 데는 미의 기준에 부합하

려는 사회의 요구와 자신의 만족 등으로 시작될 수 있으나, 나아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음식에 대한 본능을 앞서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정도를 넘어서는 인간의 행동만을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한다. 즉, 코르셋의 착용에서 신체변형을 초래하면서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조르는 에너지를 집중된 리비도로 설명하고자 하며 특히 이러한 행동이 두드러졌던 18, 19C를 중심으로, 또한 남성들도 코르셋을 착용하였지만 조르는 정도가 심했던 여성들의 코르셋 착용에 한정하여 연구를 시행한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Freud의 이론을 토대로 하였으며 이에 Freud의 번역서를 중심으로 하였다.

III. 이론적 배경

1. 코르셋(corset)의 착용

코르셋의 기원으로는, 크노투스(Knotsus) 왕궁에서 발굴된 미노아 크레타 시대의 유물을 최초의 형태로 보고 있다(Steel, 2001). 당시의 농경사회에서 다산은 풍요를 의미하였으므로 커다란 엉덩이와 가슴이 사회의 미로 인식되었는데 이를 강조하기 위해 크레타 시대의 여성들은 벨트 형태의 코르셋을 착용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현재의 의미처럼 허리부분을 조이는 코르셋 형태의 속옷은 14C부터 착용되어졌는데 남자가 모두 착용했던 허리를 느슨하게 조이는 조끼형태의 겹옷을 포르사쥬(corsage)라고 불렀다. 프랑스어로 몸체를 의미하는 ‘cors’를 사용해서 가슴에서 허리 근처까지 오는 옷이라는 의미에서 포르사쥬(corsage)라고 하였으며, 비슷한 형태의 속옷이 바스킨(basquine), 포르삐께(corps-pique) 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어 지다가 코르셋이란 이름으로 정착한다(Naver 백과사전). 중세에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몸에 꼭 끼는 코르셋류의 착용이 자제되었다.

하지만 15C에 들어서면서 여성들은 허리를 조이고 치마를 풍성하게 보이게 하고자 하였고 이는 16C 르네상스 시대에도 지속되었는데, 16C에 이르면서 길이는 길어지고 허리는 꼭 맞도록 가늘어져 가느다란 허리를 강조하도록 만들어졌다(이순홍 외, 2003). 16C말경에 앙리 2세의 왕비는 이상적인 허리치수를 13인치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이 시기에 철제코르셋이 도입되기도 하였는데, 한 벌의 갑옷처럼 한쪽에는 경첩이 달려있

고 다른 쪽에 있는 걸쇠로 채우고 고정시켰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린넨으로 만든 콜셋으로 등과 양옆구리를 고래수염이나 가는 철사끈으로 심을 넣어 보강한 것이었다. 캔버스 천이나 아교를 먹인 천으로 된 코르셋으로 가슴을 밀어 올리고 아래쪽으로는 엉덩이 부위를 덮은 형태이다(Black & Garland, 1980/1997). 가는 허리를 효과적으로 조이기 위해서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딱딱한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나무나 금속, 또는 고래뼈 등으로 길고 가느다랗게 만들어서 코르셋을 만들 때 삽입하였다. 이러한 신축성이 없는 조각을 바스크(bask)라 불렀다. 특히 철심바스크는 코르셋을 위는 좁고 허리에서 휘어 아래로 내려올수록 넓어지는 ‘서양배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허리를 심하게 조일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Craik, 2001). 1866년 영국에서 발행한 한 잡지가 의하면 “여자기숙학교에서 코르셋 착용은 의무조항으로서 사감이 월요일 아침에 조여서 풀지 못하게 채워주고 토요일에 풀어주었다. 이렇게 해서 15살에 23인치이던 허리가 2년 후에는 13인치로 줄어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Cunnington, 1981). 재질이나 길이에 있어 다양한 코르셋들이 등장하였지만 가느다란 허리가 당시의 이상적 여성 신체의 전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허리를 꼭 졸라매야 한다는 기본원리에는 변함이 없었다(최현숙, 2000).

여성들의 이러한 비이성적인 코르셋 착용이 심해지자 18C중엽에 몇몇의 의사들이 코르셋 착용에 대하여 “몸을 꼭 졸라매는 딱딱한 코르셋으로 인해 장기의 기능이 약화되어 신체가 허약해지며 척추가 휘는 것과 같은 신체의 변형이 유발된다”고 비난하였다(Craik, 2001). 그들은 신체를 튼튼하게 하고 올바른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몸을 자유롭게 풀어 놓아야 하며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이성적인 코르셋 착용으로 인한 해악(害惡)에 대해, “40년간의 코르셋을 착용한 여성들의 관찰 평균치로, 코르셋을 착용해 온 젊은 여성 100명 중 25명은 폐병으로 사망, 15명은 첫 출산 후 사망, 15명은 첫 출산 후 몸이 극도로 허약해졌으며, 이 외에 나머지 여성들도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기술하였다(Perrot, 1994). 코르셋은 흉강(rib cage)을 좁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코르셋을 착용한 여성들이 빈번하게 기질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나아가 폐결핵이나 위통, 히스테리아, 유산 등 수많은 질병을 초래하였다. 게다가 코르셋으로 인해 움직임에 제약을 받은 여성들은 근육 발달이 현저히 떨어져서 앉거나 서 있을 때 즉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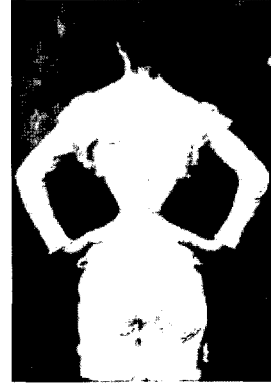
적으로 피로를 느끼게 되는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19C말에는 허리를 가늘게 하기 위하여 맨 아래 있는 늑골을 제거하는 수술이 성행되기도 하는 등 원하는 몸을 위해 신체의 건강은 무시되었다. 코르셋 착용이 원인이 된 근육의 약화와 피로로 인해 스스로 허리를 지탱할 수 없게 된 젊은 여성들은 다시 코르셋을 착용하여 동체를 앞으로 기울일 때 지주를 제공해야만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야만 했다(최현숙, 2000), (그림 2).

19C중엽 이러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동안 여성들이 코르셋을 기꺼이 착용한 것과 관련하여 코르셋 착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났는데, 코르셋 착용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지켜야 하는 정숙이나 품위와 같은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코르셋을 착용함으로써 몸에 벨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이 사회가 원하는 적합한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요구사항인 여성스러운 미덕이 요구되었는데, 이에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과 가는 허리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시대는 코르셋의 전성기로서 억압적인 사회분위기 안에서 타이트한 코르셋이 여성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구속하던 시대였다(양숙희, 이의정, 1998).

Laver(1982)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우위에 있었던 남성은 보는 주체로서 자신들의 욕망에 맞는 여성 이미지를 창조해 왔는데 빅토리아 시대에 남성들이 원하는 이미지는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 그리고 가는 허리였으며, 코르셋은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도구였다. 이러한 모습은 성적 매력이 있다는 증거가 되었고 의복과 함께 그녀의 사회적 자산을 상징적으로 보증해 주었다. 따라서 강조된 여성 신체의 형태는 결혼 시장에서 높은 교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코르셋은 착용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자기 억제를 강화하게 만드는 상존하는 감시물로 착용하였고, 항상 코르셋을 착용함으로써 여성이 잘 훈련된 마음과 통제된 감성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 당시 옹호론자들의 주장이기도 했다(최현숙, 2000).

남성들에게 성적 대상으로 보여지면서 동시에 여성 자신들은 절제된 미덕으로 감싸여 있기를 바라는 요구가 코르셋의 착용으로 충족되었다. 코르셋은 중상류층 여성의 패션에서는 정숙의 미덕을 위한 상징으로, 노동계급과 장녀들에게는 성적 특성을 과시하

는 도구로 인기를 끌면서 계급을 건너뛴 매력을 가지게 되었다(Craik, 2001).



<그림 2> 코르셋으로 허리를 졸라매어 가늘어진 허리
자료출처: Steel(2001). *The corset: A cultural history.*

2. 나르시시즘 - Freud의 견해를 중심으로

Freud(1914/1980)는 '무의식에 관하여' 중 나르시시즘에 대한 서론에서, 자가성애(ego-cathexis)와 대상사랑(object-cathexis)의 중간단계로 나르시시즘(Narcissism)이란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Jung이 주장한 비성적인 개념인 '리비도(Libido)' 만으로는 부족하며, 또한 A. Adler의 '남성항거(der mannliche Protest)'라는 개념과도 차이가 있는 형태를 대체할 개념으로 '나르시시즘(Narcissism)'을 제시하였다. 나르시시즘이란 용어는 Paul Näcke가, 자신의 몸을 마치 性的 대상을 대하듯 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설명할 때 언급한 용어로, 스스로 성적 만족을 느낄 때까지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愛撫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칭해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이후에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적 관찰을 통해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이 내보이는 특징들이 다른 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나르시시즘으로 설명할 수 있는 리비도의 표출이 더욱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나아가 Rank(1911)는 나르시시즘은 인간의 정상적인 성적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태도일 수 있다고 하였다('나르시시즘에 관한 논고 Ein Beitrag zum Narzißismus' Freud에서 재인용, 1914/1980).

즉, 나르시시즘은 성도착이 아니라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자기보존 본능이

라는 이기주의를 리비도가 보완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래 자아에게는 자아를 향한 리비도 집중이 존재하며 그 중 일부가 나중에 대상을 향해 발현된다. 정신적 삶이 나르시시즘의 한계를 넘어 리비도를 어떤 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보통의 경우 리비도의 집중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설 때 다른 대상으로 리비도를 향하게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최초의 자기애적 성적 만족들은 자기 보존의 목적에 기여하는 주요 기능과 관련되어 경험되는 것들, 즉 성적 본능은 처음부터 자아 본능의 만족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후에 성적 본능이 자연스럽게 자아본능에게서 독립하게 된다. 하지만 자아를 향한 리비도 집중은 근본적으로는 사라지지 않은 채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비도가 향하는 방향에 따라 대상 리비도와 자아 리비도로 구분하였을 때, 대상 리비도와 자아 리비도는 부적인 관계로 어느 한 쪽의 리비도가 많이 발현되면 다른 쪽을 향한 리비도는 그만큼 부족하게 된다. 정신분열증의 경우 외부 대상에게서 벗어난 리비도를 과대망상(誇大妄想)적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과대망상은 대상 리비도를 희생한 대가로 생겨난 것이다. 외부세계에 등을 돌린 리비도는 자아에게로 방향을 돌려 나르시시즘이라 불릴 수 있는 태도를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대망상 자체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한 상태가 확대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므로 대상 리비도 집중의 후퇴로 생겨난 나르시시즘을 여러 가지 영향으로 잠복해 버린 '근원적인 나르시시즘' 위에 첨가된 '부차적인 나르시시즘'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한 리비도 집중의 예 이외에 보통의 경우에도 자신 또는 타인에게 리비도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는데, 사람의 성숙단계에서 대상 리비도가 가장 크게 발현되는 시기는 사랑을 할 때로 이 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대상을 향해 리비도를 집중시키는 시기라고 프로이드는 언급하였다.

이외에 기질병(器疾病)에 대한 연구, 건강염려증(심기증(心氣症))에 대한 연구에서 리비도가 대상보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우를 설명하였는데,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리비도를 자아로 집중시킨 뒤 병에서 회복되면 다시 그 리비도를 밖으로 발산한다. 건강염려증 환자는 외부세계의 대상에게 행하던 관심과 리비도 모두를 후퇴시키고 대신 자신이 온 신경을 쓰고 있는 신체기관에 관심과 리비도를 집중

시킨다(건강염려증과 기질병의 차이는 기질병의 경우 고통의 감각이 느껴지는 것인 반면 건강염려증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또한, 리비도를 발현하려 할 때 부모의존 유형과 나르시시즘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들의 대상 선택이 부모의존 유형과 나르시시즘적 유형에 따라 명확히 나누어진다고보다 둘 다 열려 있는 선택으로서 단지 선호도의 차이이다(의존형(anaclitic type))에서의 '의존'이란 표현이 성적 본능의 자아 본능에 대한 이론을 말하는 것이지 아이의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의존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르시시즘적 유형'은 현재의 그를 사랑하는 것, 미래의 그가 바라는 모습을 사랑하는 것,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 등이 있으며, '부모의존 유형'은 자신에게 젖이나 땀을 먹여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보호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근원적으로 나르시시즘의 성향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 나르시시즘이 대상 선택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성별에 대한 차이로는, 부모 의존유형의 대상 사랑은 남성들의 특징이며 눈에 떨 정도로 성적 대상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대상 사랑은 어렸을 적의 근원적인 나르시시즘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 나르시시즘이 성적 대상으로 전이(轉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강박관념에 빠진 듯한 상태를 내보일 수가 있는데 리비도가 사랑 대상으로 집중되어 자아의 빈곤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성들의 경우는 사춘기와 함께 성기관이 성숙하게 되면서 원초적인 나르시시즘적 강화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나르시시즘적 강화는 성적 대상에 대한 과대평가를 수반하면서 진정한 대상 선택을 어렵게 한다. 여성들의 경우 특히 성장하면서 훌륭한 미모를 지니게 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자기만족을 형성하면서 대상 선택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부과된 사회적인 제약을 보상받으려 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욕구는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것에 있다.

IV. 본 론

1. 코르셋 착용에 대한 나르시시즘적 분석

1) 부모에 의해 강화된 나르시시즘적 성격

18C, 19C는 가부장적 사회로 여성을 보여지는 대상으로, 남성의 예측불로서의 인식이 강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제한되던 이 시기의 여성들에게는 훌륭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사회와 자아내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궁의 여자들은 왕족의 첩이 되는 것이 그들의 최대 목표이며 바램이었다.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은 그들의 어린 딸의 허리를 줄라매어 미적인 신체를 만드는데 열성적이었다. 좋은 집안의 훌륭한 남자와 결혼시키기 위한 어머니의 이러한 태도는 좁게는 딸의 장래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명분아래 진행되었다. 어머니의 딸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나르시시즘적 관점에서 보면, 자식들에 대한 부모들의 과도한 애정 어린 태도는 부모들이 이미 오래 전에 포기했던 그들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다시 부활시키고 재현시키는 행위로서 규정지어질 수 있다. 또한, 대상 선택의 문제와 관련하여 나르시시즘의 징후인 과대평가에 의한 대상의 신뢰가 그들 부모들의 정서적인 태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을 아주 완벽한 존재로 여기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며 자연히 자식의 모든 결점을 감추게 된다. 부모의 사랑이란 나르시시즘이 대상 사랑으로 변모되어 과거의 속성을 그대로 내보이는 것이다. 즉 자신의 일부로서 사랑을 쏟는다. 또한, 자신이 설정한 이상형과의 동일시에 의해 자식의 미적 가치에 대한 환상과 노력의 일환으로 딸의 코르셋을 줄라매어 가는 허리를 만들려고 하며, 당연히 그의 딸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자식의 아름다움을 과대평가하는 어머니의 행동은 어린 딸의 유아적 나르시시즘을 강화시키며 지속할 수 있게 만든다. 즉, 부모가 딸의 허리를 줄라매는 것은 '부모의 나르시시즘적 유형'이 작용하였고 이후에 딸의 유아적 나르시시즘을 강화시키게 된다. 또한, 전족이 성행하던 시기에 중국에서 딸의 전족 착용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과 태도 또한 코르셋의 착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린 딸이 울며불며 난리를 쳐도 위협하고 채찍질을 해가며 강제로 억압하여 전족을 강요하였고, 여아는 나이가 들면서 당시 사회적인 심미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전족의 아름다움을 숭상하게 된다(高洪興, 2002)”.

2) 사회에 의해 외모위주로 조성된 이상형의 여성 (구체적으로 조성된 이상형)

또한 어렸을 때부터 외모에 대한 미적 가치의 중요성을 익힌 중, 상류층의 어린 딸들은 가시적 가치가

자신의 가치를 대표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보여지는 자신에 대한 치우쳐진 관심은 외모에 대한 집착을 강조시킬 수 있다. 자신에게 조차 자신은 보여지는 대상으로서의 관점이 컸다. 자신에 대한 만족은 나르시시즘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이에 이상형(理想型) 설정 시 외모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되며 강화되고, 지속된 나르시시즘은 자신이 바라는 몸매로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는다. 미리 정해진 사이즈에 자신의 허리를 맞추는 것이 가능하며, 외모에 대한 집착과 그에 따른 사회적인 정당한 이유 등이 코르셋으로 호흡이 힘들 정도로 조이게 만들었다.

3) 도덕적으로 강조된 이데올로기에 의한 외부로의 리비도 발현 억제

18C, 19C는 여성의 정조가 중요시 되며, 체면이 중시되던 사회였다. 특히 중, 상류층의 여성들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심했으며 엄격한 여성성이 규정되던 시기이다. 기독교적 도덕의 금욕적인 강요와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여성의 권리약화는 여성의 대상으로의 리비도적 본능의 발현을 저지시켰다. 대상 리비도의 발현이 비도덕적이라고 인식하는 여성들은 이를 교육에 의한 도덕적 양심으로 제한시켰다. 대상 리비도와 자아 리비도의 관계에서 하나의 억압은 다른 하나의 확대가 된다. 이에 대상 리비도의 억제에 따라 자아 리비도가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대상에 대한 성적 만족을 느끼는 것이 비도덕적이지만 자신에 대한 그러한 태도는 타인에 의해 사회적으로 인식할 우려도 적으며 본능적인 리비도의 발현을 위한 하나의 방책일 수 있다.

4) 자아로 집중된 리비도

자아로 집중된 리비도는 설정한 이상형의 도달을 적극적으로 하계끔 한다. 자아는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기준으로서 이상형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이상에 따라 자신이 실제적 자아를 측정한다. 이 이상형의 형성이 억압의 전제조건이 되며 억압은 자아를 스스로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리비도적 본능충동이 주체(개인)의 문화적, 윤리적 이념과 충돌할 때 그 리비도적 충동이 병발성(病發性) 억압으로 바뀌며 억압은 자아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즉, 억압은 자아를 스스로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며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이상(理想)을 설정하여 그 이상에 따

라 자신의 실제적 자아를 측정하기도 하는데 자아의 관점에서 볼 때 ‘이상형의 형성’이 바로 억압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 ‘이상적 자아(ideal ego)’는 어린 시절 ‘실제적 자아(real self)’가 누렸던 자기사랑의 목표가 되며, 한 개인의 나르시시즘이 이 새로운 이상적 자아로 옮겨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이 이상적 자아는 유아기의 나르시시즘처럼 모든 가치와 완벽함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비판적 판단아래 그 완벽함을 유지할 수 없게 될 때면 그것은 ‘자아 이상(ego ideal)’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작용을 승화(昇華)라고 일컫는데, 자아 이상의 형성은 자아의 요구를 극대화 하고 따라서 억압의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되지만 승화는 억압과는 무관하게 그런 자아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편이자 탈출구로서 작용한다.

즉, 자아 이상을 통해 나르시시즘적인 만족감을 얻게끔 보장해 주고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실제적 자아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는 기관으로(이를 양심(良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아 이상의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게 된다. 자아의 발달은 근원적인 나르시시즘에서 멀어져야 가능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다시 원래의 나르시시즘 상태로 돌아가려는 강한 욕구를 생성하게 된다. 근원적 나르시시즘에서의 이탈은 외부에서 강요된 ‘자아 이상’으로 리비도가 재배열되어야 가능하며 만족은 그 ‘자아 이상’의 실현을 통해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나르시시즘적으로 리비도가 자아를 향하는 동시에 자아는 대상을 향해 리비도를 집중시키기도 하는데, 자아는 ‘자아 이상’ 때문에 빈곤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대상으로의 리비도 발현으로 빈곤해질 수도 있다. 자아는 이상의 실현을 통해 빈곤해진 자아를 풍요롭게 하며 리비도 발현의 대상에 대한 만족에서 나르시시즘적으로 자아로 변형되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는 리비도가 자아와 대상으로의 적절한 발현이 증시되며, 이상형에 대한 적절한 타협으로 찾은 자아 이상이 제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외모의 미에 관심을 두며 자라온 여성은 이상형을 설정할 때 외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된다. 정신적 가치를 비롯한 모든 가치의 완벽함이라기보다 ‘완벽한 외모’의 가치에 치우쳐 있다면 도달할 수 없는 이상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달 가능할 수 있다. 이에 실제로는 도달 할 수 없는 자아인 이상적 자아로의 도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상

적 자아(ideal ego)’에서 비판적 판단하에 실현가능한 적당한 타협과의 산물인 ‘자아 이상(ego ideal)’으로의 변환이 약해진다. 도달 기념인 사회에서의 자아구축을 위한 도구로서의 이상적인 몸매는 코르셋을 조이는 구체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매력적인 몸매를 만들기 위한 코르셋의 착용은 지속적인 고통을 수반한다. 이에 리비도는 자아로 편중되며 계속되는 착용으로 인해 대상으로의 리비도 발현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나르시시즘적 특성이 강화된다. 자아로 집중되는 에너지는 코르셋 착용의 강화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며, 이러한 강화된 구체적인 역할이 반복이라는 개념과 함께 수행되는 것이다. 신체의 고통은 대상으로의 관심을 분배할 여유를 잃게 되며 강화된 내향적인 리비도는 고통의 원인이면서 관심의 대상인 코르셋을 조이는 힘이 된다.

V. 결론 및 제언

인간의 역사에는 다양한 패션이 존재해왔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과의 동일성 추구를 비롯한 다양한 내면의 욕구와 사회적 요구에 의해 이러한 패션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과도한 에너지 집중으로 인하여 패션의 추구에 집착한 나머지 몸을 해하면서까지 추구한 예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Freud가 언급한 나르시시즘으로 해석되어질 있다고 사료된다.

Freud는 내면의 에너지가 적절하게 분산되어 외부로 향해지기보다는 비정상적으로 내부로 향해지는 것을 나르시시즘으로서 설명하였는데, 가치관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에서 그러한 에너지의 집중은 비이성적인 행위로 나타날 수 있으며 몸을 해하는 정도의 열성적인 패션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18, 19C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의 코르셋 패션을 조사하였다. 이 시기의 여성들에게는 허리를 과도하게 조르는 코르셋이 유행하였는데, 조르는 정도가 너무 심하여 신체가 변형되거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예가 빈번하였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허리를 조르게 만들었던 에너지를 Freud의 이론 중 나르시시즘을 토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에 의해 강화된 나르시시즘적 성격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자녀의 유아기 나르시시즘을 강화시켰다. 과대평가에 의한 대상, 즉 자신의 자식들에 대한 넘치는 신뢰는 자기 자식들을 완벽한 존재로, 혹은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하면서(이는 부모가 오래전에 포기했던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다시 부활시키고 재현하는 행위로서 규정되어 질 수 있다) 과도한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자식들이 자신에 대한 나르시시즘을 강화하게 하였다. 즉 비판적인 개념이 약한 어린 자식에게 투영된 부모의 나르시시즘은 딸의 나르시시즘을 강화시키면서 코르셋을 줄라매는 에너지를 증대시킬 수 있었다.

또한 사회에 의해 외모위주로 조성된 이상형의 여성은 구체적으로 이상형을 조성하게 하였는데, 자아 가치의 기준이 되는 이상형의 설정 시 외모적인 면이 강조되어지며 이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그 시대 여성의 가치도달에서 가장 좋은 방법인 미적 외모를 위한 노력은 자아로 집중된 리비도로 인해 극대화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18, 19C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적 특성으로 인하여 여성들은 도덕적으로 외부로의 리비도 발현이 제한되어 자아로 리비도가 집중되는 현상을 강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적, 외적 영향에 의해 '이상적 자아(ideal ego)'에서 '자아 이상(ego ideal)'으로의 전이를 힘들게 했다.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구체화된 방법으로 설정된 이상형 도달과 자신에게 내재된 리비도(libido)라는 에너지는 코르셋으로 끊임없이 허리를 조이게 하는 추진력이 됐으며, 근본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자아 이상형'으로의 가능성도 느끼게 해 주었을 것이다. 즉, 실제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자아인 이상적 자아로의 도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성적 사고가 가능한 합리적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지 않은 허리 사이즈를 만들려고 하는 여자들의 내면에는 '가능성'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끈을 줄라매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이러한 분석에 나르시시즘을 적용한 이유이다. 분산된 관심과 에너지가 아닌 집중된 대상과 에너지는 객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도 없이 반복과 노력이라는 시도아래 시행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패션과 같은 가시적인 현상에 대한 질적 연구는 그 현상에 내재된 본질을 알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일련의 행동보다 특징적인 행동 즉, 추진하게 된 에너지의 원천에 대한 조사와 같이 구체적인 연구를 한다면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현상들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과거 전족이나 목뼈가 머리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머리장식, 또는 목에 가능한 많은 고리를 끼우고자 노

력하는 아프리카의 부족까지 정도를 넘어서는 다양한 행동들에 대해 공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울 수 있다고 사료된다.

즉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기보다 행동들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연구가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며 이는 나아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여성들이 과거에 밧발가 으스러지도록 착용한 전족에 대해 高洪興(2002)은 여성들이 남성의 사랑을 받고 사회가 원하는 여성을 위해 여성을 구속하며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기술한 바 있다. 전족에 대해 당시 비판도 많았지만 여성의 정조와 같은 가부장적인 사회의 요구(특히 남성의 요구)에서 열성적으로 착용되어진 것은 시대나 장소는 다르지만 코르셋의 착용과 일맥상통하는 사회적 현상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나아가 앞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형태는 다르지만 근본적인 요구가 같은 원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용섭. (1999). *동일시와 노예의지*. 서울: 백의.
- 양숙희, 이의정. (1998). *페티시즘*. 서울: 경춘사
- 이순홍, 김서영, 김은란. (2003). 코르셋이 주는 여성 인체 변화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 17집, 63-79.
- 최현숙. (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학위 논문.
- 高洪興. (2002). *纏足, 중국의 전족이야기*. 도종만, 박영종 역. 서울: 신아사.
- Black, J. A., & Garland, M. (1980). *세계패션사(A history of fashion)*. 윤길순 옮김 (1997). 서울: 자작아카데미.
- Craik, J. (1993). *패션의 얼굴(The Face of Fashion)*. 정인희, 함연자, 정수진, 김경원 옮김 (2001). 서울: 푸른솔.
- Cunnington, C. W., & Cunnington, P. (1981). *The History of Underclothes*. London: Faber.
- Ewing, E. (1974). *Fashion in underwear*. London : Batsford
- Freud, S. (1914). *무의식에 관하여*. 윤희기 역 (1980). *프로이트 전집*, 13. 서울: 열린책들.
- Laver, J. (1982). *Costume & fashion : A concise history*. New York: Thames and Hudson.
- Naver 백과사전. 자료검색일 2005, 4. 1, 자료출처 <http://100.naver.com/100.php?id=151632>
- Perrot, P. (1994). *Fashioning the bourgeoisie: A history of clothing in the nineteenth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Steel, V. (2001). *The Corset: A Cultural History*.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